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본청 로터홀에서 선거구획정안관련 3당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與野, 선거구 획정 또 시각 “역대 최악... 참정권 침해”

21대 총선 불과 42일 앞두고 합의 17대 총선, 선거 37일 전 확정안 선거구 획정 늦어지며 혼란 우려

여야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논의에 늦장을 부리면서 ‘참정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오는 4월 15일 치르는 21대 총선을 위해서는 선거구(지역구) 획정안 마련이 필수다. 선거구 없이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4조 2항은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여야는 선거법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여야 입장 차로 선거구 획정안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4일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했다. 21대 총선을 불과 42일 남겨두고 나온 합의안이다. 합의안은 선거구 인구 기준을 하한 13만9000명 이상, 상한 27만8000명 이하로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인구 기준 조정에 따라 세종시는 2개 선거구로 분구하고, 경기 군포시의 경우 갑·을이 하나로 되는 등 변동이 생길 예정이다.

문제는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늦장 처리’한 게 처음이 아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일 37일 전에 정해졌다. 2008년 18대 총선(선거일 47일 전), 2012년 19

대 총선(선거일 44일 전), 2016년 20대 총선(선거일 42일 전)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여야 합의로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되더라도 거쳐야 할 관문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결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 확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역대 최악의 기록’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선거구획정위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국회 내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시점까지 고려하면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을 마치는 6일은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 등이 확정되는 16일까지 시한이 있지만, 여야간 갈등으로 참정권 침해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짐에 따라 유권자 역시 혼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5일 본지와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데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선거구 획정이 되면 유권자나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혼란이 없다. 특히 입후보 예정자들은 자기가 나갈 선거구를 알아야 하지 않나”며 “유권자 입장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짐에 따라 혼란이 있어) 빨리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코로나19가 바꾼 교육계

‘원격·비대면·온라인’ 대세로

대학 원격시스템 구축·확대 총력
교재업체도 ‘비대면 상담·수업’
디지털 혁신의 기회로 삼기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육계에 비대면 온라인 교육 바람이 불고 있다.

2주내외 개강을 연기한 대학들은 개강 이후에도 당분간 온라인 강의를 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업체들도 대면 없는 온라인 상담·교육이 가능한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대학가 온라인 강의 확산

5일 대학가에 따르면, 1~2주 개강을 연기한 대학들은 상당 수 개강 이후에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성균관대는 온라인 수업 플랫폼 ‘아이캠퍼스’를 활용해 개강 이후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다. 올해 1학기 첫 주 수업의 영상강의 녹화도 거의 마쳤다. 아이캠퍼스는 기존에 소규모 특강이나 성균학원 위주로 이용됐으나, 개강 연기에 따라 전체 강좌로 확대 운영한다.

단국대는 원격 강의 시스템 ‘이러닝 캠퍼스’ 서버를 확장하는 등 개강 이후 온라인 수업을 준비 중이다. 온라인 강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교강사에게 원격 강의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게 했다. 또 실습이나 실습 강의의 경우 원격 강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추후 오프라인으로 보강토록 했다.

삼육보건대도 개강 이후 2주간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하고 모든 교강사의 온라인 수업 활용을 의무화 했다. 온라인 강의 규정과 지침을 완화하고 교수들의 온라인 수업제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매뉴얼도 만들었다.

특히 지난해 구축한 ‘라피드실(Robotics, AI, 3D프린팅, IOT, 드론의 앞글자를 딴 기술융합교육)’에 최신 전자 칩판을 설치하고 1인 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조성해 온라인 강의를 제작키로



유도이미지

했다. 학교측은 모든 강의를 ‘K-MOOC’ 수준으로 제작해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재능대는 대면 수업이 가능할 때까지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진행토록 하고, 디지털 혁신의 기회로 활용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개강 연기와 온라인 대체 수업을 권고하면서 대학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관련 지원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수 단체인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가 중국 유학생 1000명 이상인 17개 대학의 지난해 온라인 동영상 강의비중과 강의운영 능력을 실태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대학의 온라인 강의 수행 능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조사 결과 213개 일반대학(분교 포함)의 지난해 온라인 강의 비중은 0.92%였다. 경희대, 경원대, 동국대, 건국대, 홍익대, 상명대만 연간 온라인 강의 비중이 1%를 넘었고,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는 0.1% 수준, 서강대는 온라인 수업이 아예 없었다.

한교협은 “일부 주요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학이 자체적인 온라인 강의시스템 서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동영상 강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교육부는 대학에 모든 동영상

강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현실적으로 동영상 강의 능력이 제로인 대학들에게 시스템 보완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네이버, 다음 등 주요포털과 EBS, KERIS와 대학 관계자들과 ‘한시적 TF 준비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업체도 비대면 확산

한편, 교육업체들도 개강 연기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공백 최소화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재능교육은 실시간 비대면 학습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재능이랑’ 앱을 출시했다. 학습결과를 활용해 공유하고, 이를 보며 실시간 채팅 상담을 진행하는 게 특징이다. 앱은 ‘학습한 교재 페이지 촬영’, ‘선생님의 맞춤형 피드백’, ‘교재 위주 실시간 채팅 상담’, ‘학습 이력 보기’, ‘알림 기능을 통한 학습 독려’ 등의 기능이 있다. 재능교육 관계자는 “학부모 불안 해소를 위해 앱의 출시를 앞당겼다”며 “앞으로 최대한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연계해 가정에서도 학습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웅진씽크빅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스마트 패드로 독서와 전과목 홈스쿨링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추가 제공하고 유선과 화상 관리가 가능한 ‘에듀케어 홈스쿨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기존 담당교사를 유선 코칭 서비스로 연결, 주1회 방문 학습을 주 2회 유선 관리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윤선생은 자사 회생관리 수업 브랜드 ‘윤선생베이직’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규 학습 회원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함에 따라 신규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학습비 할인과 경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윤선생베이직은 관리교사 선택이 가능한 화상형 영어학습 상품으로 집에서 월20차시 분량의 자기주도학습을 하며 주 1회 교사와 일대일 화상관리 수업을 받을 수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단국대 中유학생들, 대구시에 성금 ‘한뿔’

단국대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구 시민을 위해 성금 230만 원을 모았다. 국내 재학 중국인 유학생들 중에선 첫 성금이다. 모금 운동 소식을 들은 단국대 김수복 총장이 100만 원을 더해 총 33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지사에 전달했다.

단국대 박사과정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자 지난달 27일부터 모금 운동을 펼쳤다. 손 소독제, 마스크 등 긴급 물품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흘간 펼친 모금 운동에 중국인 학부·대학원생 교직원 등 97명이 참여했다.

모금에 참여한 중국인 유학생 대부분은 단국대가 교내 생활관에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 거주하면서 3월 16일 개강에 맞춰 자가 격리 중이다. 감염 예방을 위해 1인 1실을 사용하며 서로 마주치지 않음에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 빠르게 모금을 할 수 있었다.

모금 운동을 주도한 천령운(조형예술학과 박사과정)·류원하오(체육학과 박사과정) 씨는 “중국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을 때 한국에서 많은 도움을 준 것을 알고 있다”며 “단국대 역시 중국 유학생들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어 조금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했다.

김수복 총장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펼친 것이 대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시민에게 도움을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용수 기자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도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경희사이버대학교

경희사이버대 동대문문화재단과 지역문화 살린다

문체부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 이 사업은 문화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문화 분야 현안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고 지역문화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다. 문화예술경영전공은 동대문구 제기동의 도시한옥 밀집지역의 보존이나 활용이 미흡한 점들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경희사이버대학교가 동대문구 제기동의 도시한옥 밀집지역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 5일 경희사이버대학교에 따르면, 문화창조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은 동대문문화재단과 협업해 ‘2020년도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삼육대 학생들

알바비 모아 코로나19 기부

삼육대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발적인 모금 운동에 나서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5일 삼육대에 따르면, 화학생명과학과 4학년 김민희 씨가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모금 운동을 제안했고, 학생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김 씨는 “코로나19와 사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지쳐 앉아있는 사진을 보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며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기부하려 했으나, 학교 이름으로 다 함께 모금하면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에 커뮤니티에 동참 의사를 물어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